

2025 청년포럼 : 군산을 다시 보다

군산을 다시 보다 2025 청년포럼

군산시·군산시청년들

2025 청년포럼

군신을
다시 보다

CONTENTS

01	2025 청년포럼	들어가는 말	6
		개요 및 타임라인	8
02	청년패널토크	200인의 청년, 군산을 말하다	10
		Q.나에게 군산은 어떤 곳인가요?	18
		Q.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4
		Q.청년의 정착을 위해 더 발전되길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30
		Q.청년 친화 공간 정책 추진에서 더 우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36
03	주제강연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42

들어가는 말

2025 청년포럼은 '군산을 다시보다'라는 주제로, 도시와 청년의 관계를 새롭게 비춰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사전포럼을 열어 군산시와 군산청년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질문에 대해 군산과 군산 외 지역 청년 200인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질문은 단순한 설문을 넘어, 청년들이 군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나에게 군산은 어떤 곳인가요?”
- 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청년의 정착을 위해 더 발전되길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 청년친화공간 정책 추진에서 더 우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위 네 가지 질문은 이번 포럼의 주요 화두입니다.

질문에 대한 청년 200인의 답변을 바탕으로 청년패널토크가 진행되고, 정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주제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묻고 답하려 합니다. 포럼의 운영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발언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과 생활이 만나는 장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청년뜰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공공의 지원과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시작된 논의가 단지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공간을 바꾸는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군산은 오래된 근대 도시이자 새로운 미래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청년이 자유롭게 숨 쉬고 머물며,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군산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청년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군산이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2025 군산청년정책포럼 기획운영단

2025 정책포럼 군산을 다시 보다



개요

일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13:50 ~

장소

동우아트홀
*군산시 내항1길 4

주최·주관

군산시
군산시청년들

기획·운영

군산시청년들
우만컴퍼니

타임라인

구분	시간		내용
부스운영	11:00-17:30	-	정책홍보, 체험 및 놀이부스, 푸드존, 쉼터, 체험부스
오픈닝	13:40-13:50	10분	개막선언
청년포럼	13:50-15:20	90분	청년패널토크 - 군산시는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가? 내빈 말씀 -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15:20-16:20	60분	주제 강연: 정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무대공연	16:20-17:50	90분	군산대 총동아리 연합 공연 레크레이션
	17:50-18:30	40분	호원 K-POP 콘서트
	18:30-19:00	30분	뮤지컬 '청년'
	19:00-19:30	30분	초대 가수 '정인' 공연

프로그램

청년패널토크

"군산시는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주제강연

정석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참여 패널

- 고건호 | 태경SBC(주) 근로자
- 이슬기 | 로컬크리에이터
- 임주예 | 국립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도규 | 군산청년협의체 위원장

좌장

- 김나은 | 문화기획자, 군산청년협의체 부위원장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년의 날 행사
『청년포럼: 군산을 다시 보다』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패널토크

군신은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가?

200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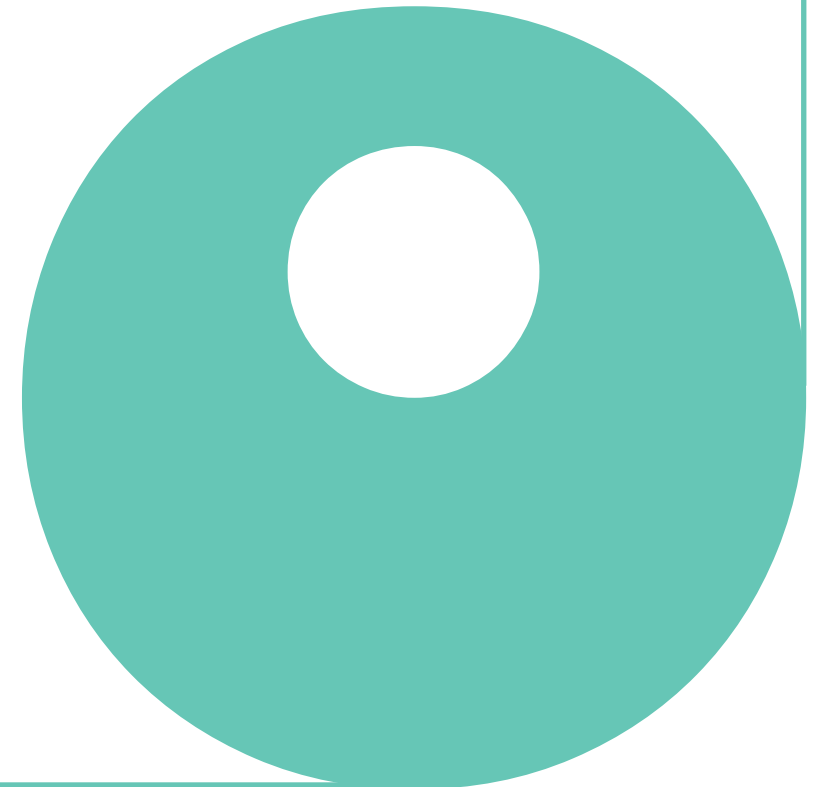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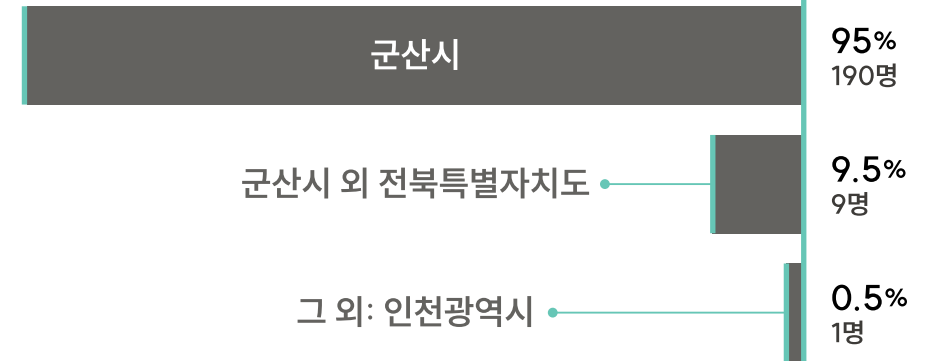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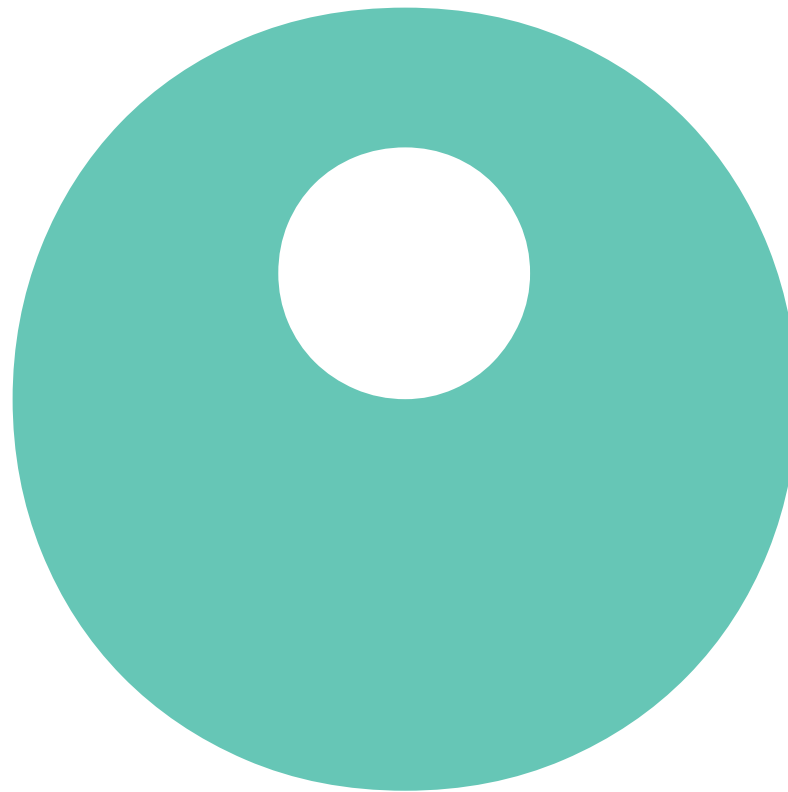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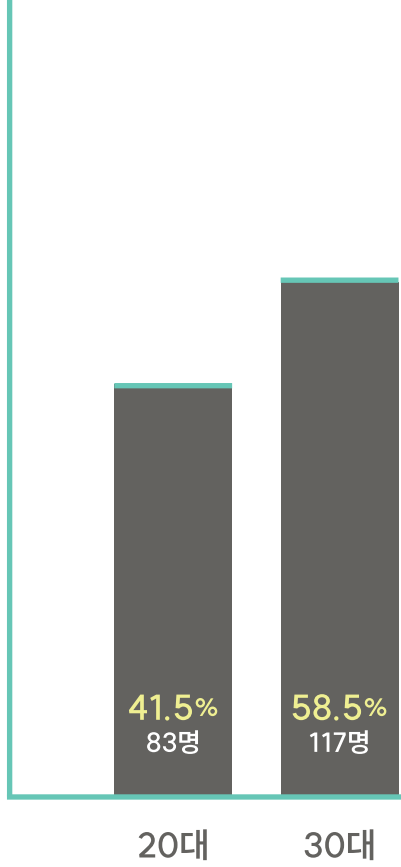
군심을 말하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한 사전조사(2025. 9. 1. - 9. 6.)에
참여한 청년 200인의 답변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신 청년 200인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민정 강민주 강소진 강위로 강은훈 강주호 고건우 고민영 고유라 고은경 공형배
곽수연 곽혜인 구대근 권주홍 김가연 김가영 김나연 김나영 김나은 김동휘 김민석
김민아 김민영 김민희 김민정 김 별 김상현 김서경 김서림 김성은 김소영 김소영
김소은 김소현 김수연 김연서 김우희 김유정 김유현 김은선 김이안 김정화 김지애
김지원 김지유 김지은 김지은 김지호 김지훈 김진수 김진하 김진희 김하늘 김현필
김호진 김 희 나민희 나수진 나유민 노광현 류영지 문강현 문예빈 문태준 민지홍
박경수 박경은 박민영 박보영 박선화 박세희 박소현 박연재 박유정 박유진 박윤하
박은영 박은진 박인서 박재용 박재현 박재훈 박주현 박지연 박지율 박진서 박찬추
박한진 박혜영 백수민 서문준 서민유 서아라 서지민 서지혜 선기쁨 선명한 성수빈
손윤정 송민선 송서희 송세진 송은희 신대환 신아현 신윤서 신진영 안소희 양수정
여하원 오승민 오하람 오하정 유은성 유주희 유하은 윤소율 윤주희 이가영 이기범
이나영 이나은 이다은 이명후 이미라 이세영 이소연 이수진 이연준 이영희 이원지
이유리 이지영 이 윤 이은수 이재현 이종하 이주형 이주호 이준영 이지선 이지은
이지인 이 진 이진주 이진희 이채원 이초홍 이혜민 이효진 이희영 임태민 장길남
장윤미 전동현 전효주 정가람 정다은 정시연 정시온 정연희 정유건 정은영 정이현
정재우 정지영 정태하 정현정 정희은 주동현 지유나 채정은 채지은 최도영 최민희
최수연 최예원 최은성 최은지 최이현 최지우 최지원 최진영 최하람 최현지 하윤수
한다영 한성주 한예리 한채희 한혜민 함채원 허은주 허은지 허지혁 홍준기 홍지혜
홍진호 황지수

2



청년의 기억과 미래가 만나는 도시, 군산

군산은 바다와 항구, 갯벌과 미군기지, 공장과 골목 사이에 사람들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도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잠시 머무는 경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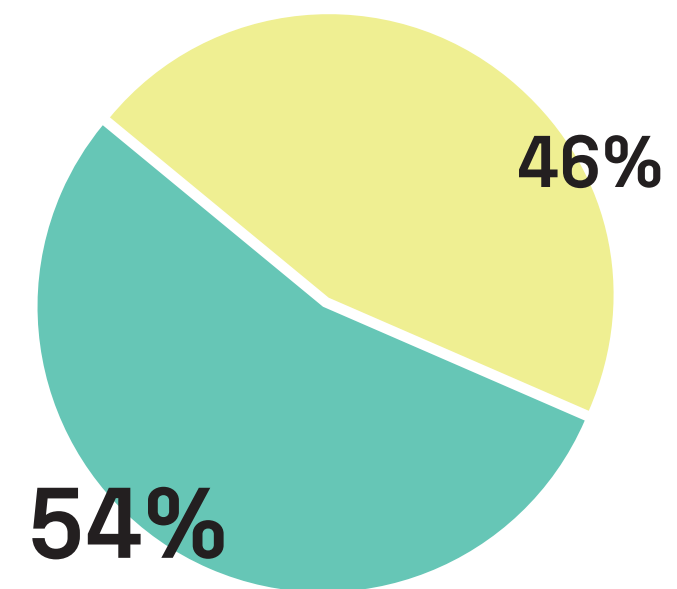
청년들이 바라보는 군산은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꿈을 시도하고 정착 여부를 고민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청년이 저마다 군산을 어떤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경험이 도시와 개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Q1.

나에게 군산은 어떤 곳인가요?



성장할 수 있는 곳: 54%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 46%

성장할 수 있는 곳

54%
108명

주요 의견

- 군산은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산업과 관광 자원이 조화를 이루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이므로 성장 할 수 있다.
- 군산에서 만나는 다양한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업적 그리고 방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 군산시 청년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자격 취득 및 취업을 할 수 있다.
- 군산은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리잡기가 용이하다.
- 군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겼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받으며 실무 역량과 인적 자원을 향상할 수 있다.
- 지역 공동체가 주는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도시이다.
예를 들어 자연만봐도 강, 호수, 산 등 웬만한 요소는 다 있다.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도 잘 되어 있어서 창작자의 창의력을 발휘하기엔 정말 좋은 무대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

46%
92명

주요 의견

- 군산은 지방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한 인프라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문화유산 보존이 잘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살수 있는 곳이다.
- 가족과 편하게 만나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서울도 살아보고, 경기도도 살아봤지만, 군산은 안정적인 물가와 공간이 형성되어있다.
- 대학 때 잠시 떠난 것 빼고는 20여 년을 살아왔다. 군산은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부모님에게 워킹맘이라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안정감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 군산은 물가가 비교적 낮아 생활하기 부담이 적다. 바닷가 근처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오래 머물며 정착하기 좋은 곳이라 느낀다.
- 도시의 크기가 적당해 복잡하지 않아 생활하기 편안한 동네라고 생각한다.
- 특별한건 없지만 가족과 지인이 있고, 어릴적부터 살아온 고향이다.





머무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 군산

청년 친화적 공간은 단순히 휴식이나 여가를 제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청년이 이곳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서로 교류하며,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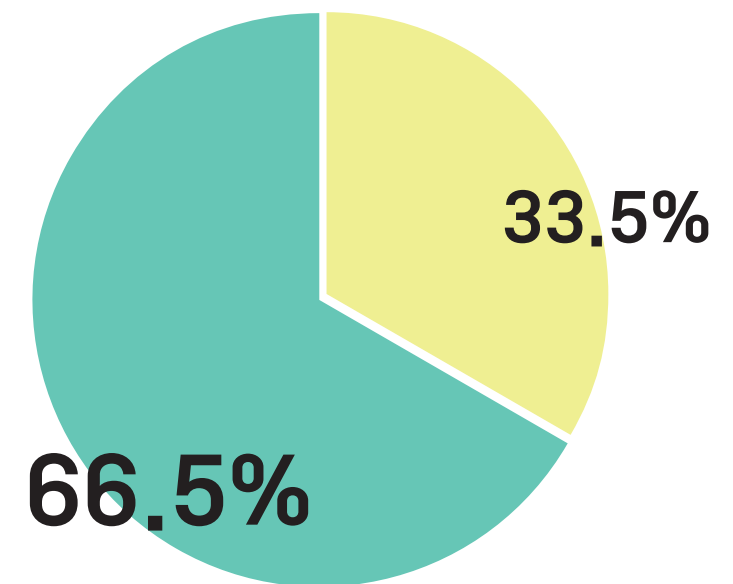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문화적 수용성과 행정적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됩니다.

이 질문은 청년이 군산에 필요로 하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Q2.

‘청년 친화적 공간’ 구성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와 주거생활 안정화: 66.5%

경제·문화 활성화: 33.5%

일자리와 주거생활 안정화

66.5%
133명

주요 의견

- 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된다.
-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주거와 일자리임을 체감한다. 안정적 생활 기반이 없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기반이 있어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다.
- 주거-일자리가 안정되면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 단순한 공간 제공보다 생활 기반 보장이 더 중요하다.
- 청년 복지의 핵심은 생활 안정이다. 주거와 일자리가 불안하면 복지 프로그램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안정이 보장될 때 진정한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 친화적 공간은 이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 청년친화공간은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자리와 주거가 안정되어야 청년들이 군산에 머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 위에 문화·경제 활동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활기찬 공간이 만들어진다.
-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써,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유출되지 않고 자리잡을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도 안정화된다면 경제 및 문화는 자연스레 활성화 될 것이다.

경제·문화 활성화

33.5%
67명

주요 의견

- 일자리와 주거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가 없다면, 지역 내 경제가 돌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다.
- 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만남이 가능할 때 창의적 활동과 성장이 촉진된다.
- 경제·문화 지원이 함께되어야 군산에서 오래 머물며 자기계발을 이어갈 수 있다.
- 일이 없고 집이 없어도 서로 응원하며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청년의 매력 중 하나라 생각한다. 젊은 사람은 그들만의 문화를 빠르게 생성하고, 교류하고, 소비하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한다.
- 지역 청년의 애착도를 높이고 타지역의 정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넘어 대도시와 차별화 된 군산만의 독창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과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거와 일자리에는 만족해도 문화적으로 만족하는 도시를 찾기는 어렵다.
- 경제와 문화는 청년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머무는 이유가 생긴다. 경제적 기반만 있고 문화가 없다면 단조로운 삶이 되고, 문화만 있고 경제가 없다면 생활이 어렵다. 두 가지가 함께 활성화될 때 청년들이 오래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된다.

생활 기반

안정적 미래

삶의 안정

사회 활동 기반

청년 유출 감소

즐길거리

지속가능성

삶의 여유

머물고 싶은 곳

차별화된 지역



살아가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청년이 한 도시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데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주거, 문화, 관계망, 성장의 기회가 고루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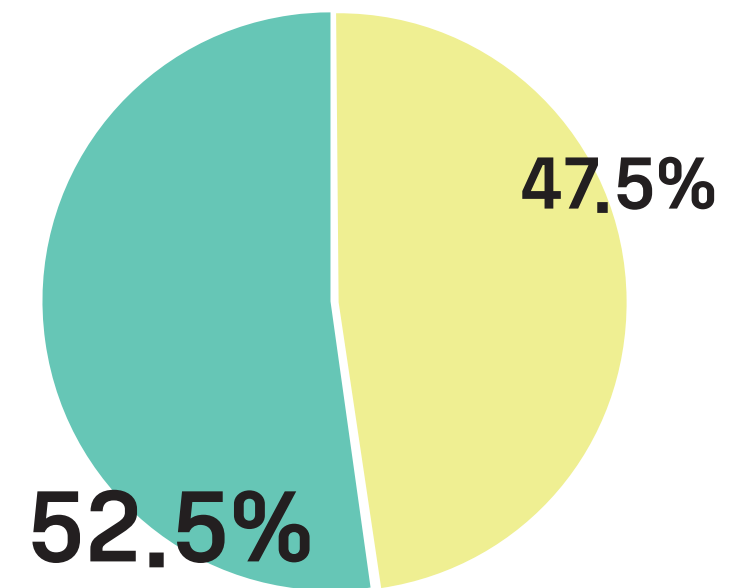
군산이 청년에게 정착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단순히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양질의 삶과 함께 미래 전망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군산에서 청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넘어, '살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합니다.

Q3.

청년의 정착을 위해

더 발전되길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문화 인프라·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52.5%

교통·시설 등의 편의성: 47.5%

문화 인프라·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52.5%
105명

주요 의견

- 청년 커뮤니티는 사회관계 형성에 중요한데, 현재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다.
- 청년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소속감을 중시한다.
문화 인프라와 커뮤니티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역 애착'에 중요한 요소이다.
-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야 청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정착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
- 청년 커뮤니티는 서로를 지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소통하면 외로움이 감소되고 정착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교통과 시설의 편의성은 인구가 증가해야 비로소 절실해진다. 지금은 문화 인프라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활성화가 더 우선이며, 편의성은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일자리와 주거만 있으면 살 수는 있지만, 소속감이나 재미와 애정이 없으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
문화 인프라와 청년 커뮤니티 지원이 활성화되면 지역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교통·시설 등의 편의성

47.5%
95명

주요 의견

- 편리한 교통과 시설 등의 인프라가 있어야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등, 인구대비 지역의 면적이 넓는데 자차가 없는 경우 이동이 불편하다.
당장 청년을 위한 공간인 청년뜰에 가는 교통도 아쉽다. 일자리의 문제점도 결국 출퇴근의 교통이다.
- 정착을 위해서는 이동이 편하고 생활 편의가 잘 갖춰져야 한다.
버스 등 대중 교통이 편리해야 학교나 직장 등의 장소를 쉽게 오갈 수 있다.
- 시설의 편의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교통편은 불편한 실정이다.
군산은 자차가 있는 경우 차량 이동의 도로는 편리하지만, 청년층 중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확대나 환승 편리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꽤 오랫동안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개선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청년의 편의를 해결하고 이후 문화 인프라,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이들이 군산의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 교통이 편리해야 외부와 연결되고 시설이 좋아야 기본적인 만족도가 충족된다.
-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결국 떠날 이유가 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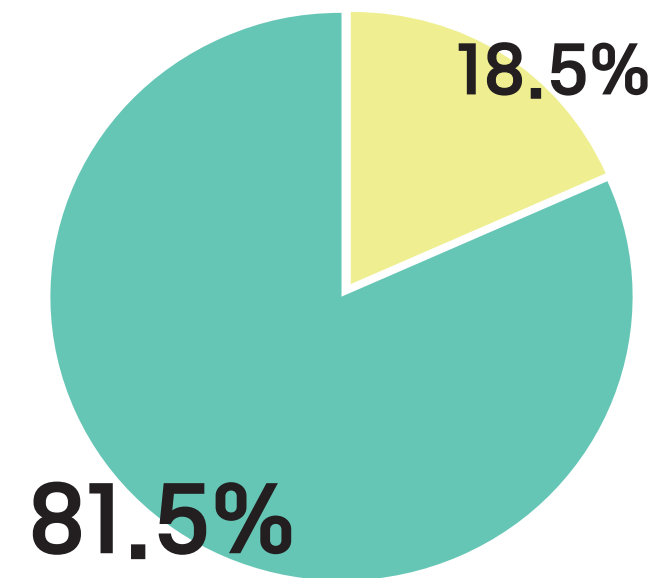




청년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정책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과 일상에 닿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과 중앙 정부를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원과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속도와 함께 청년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심에 뒹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Q4. 청년친화공간정책 추진에서 더 우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 청년 수요를 직접 반영한 맞춤형 설계: 81.5%
- 전문가 우선의 방향 설정 및 설계: 18.5%

청년 수요를 직접 반영한 맞춤형 설계

81.5%
163명

주요 의견

- 실 수요자인 청년 의견이 반영되면 정책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있다.
- 정책을 설계할 때는 청년의 실제 요구가 반영돼야 효과적이다.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지만, 청년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로 청년의 생활과 필요는 현장에서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최우선하되 전문가의 분석으로 구체화된 정책이 좋은 설계라 생각한다.
- 청년 수요를 직접 반영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 청년 맞춤형 설계가 되어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수요 반영은 곧 정책 성공의 열쇠이다.
-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대별로 격차가 크고 층위가 다양해서 각자의 니즈 역시 다양하다.
여러 카테고리의 청년을 만나고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지속성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 우선의 방향 설정 및 설계

18.5%
37명

주요 의견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해야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된다
- 개별적인 수요 반영은 장점도 많은 반면, 타겟형 구조의 한계상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낮다.
기본 정책의 틀을 마련한 전사적인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 예산과 행정 절차는 전문성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정책의 실행력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방향 설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
- 청년 수요 맞춤은 단기적 성과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을 놓치기 쉽다.
정책, 도시계획, 일자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다하여도 모든 사람의 수요 반영은 어렵고 결국 놓치는 의견이 발생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의 리드가 필요하다.
- 청년의 니즈가 변하더라도 기본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시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 낭비 방지
다양한 청년의 범위
실효성
정책 만족도
정책의 지속성

기본 구조 형성
체계적 설계
유연한 정책
장기적 안목
운영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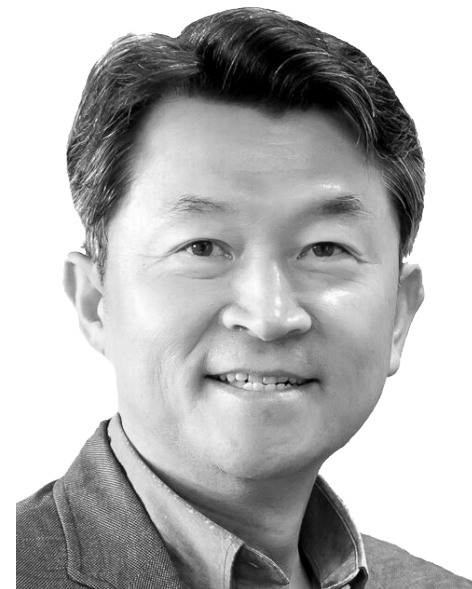
주제 강연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강연 자료(PDF) 다운로드

wuman.co.kr/gs2025



정 석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現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現 서울시 거리가게상장정책자문단

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서

『시민의 도시, 서울』(마티, 2017)

『행복@로컬』(레벤박스, 2024)

『골목에서 배우는 인권』(철수와영희, 2025)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

행복@로컬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영양소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튜브 : 도시의 정석



천 천 히 재 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왜?

1. 대한민국의 오늘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쟁

최고급 시설에다가 스타들의 사생활까지 보호해주는 A조리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표원장 **최정민**

-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
- 지인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 대한산부인과협회 임원
- 대한산부인과협회 임원

산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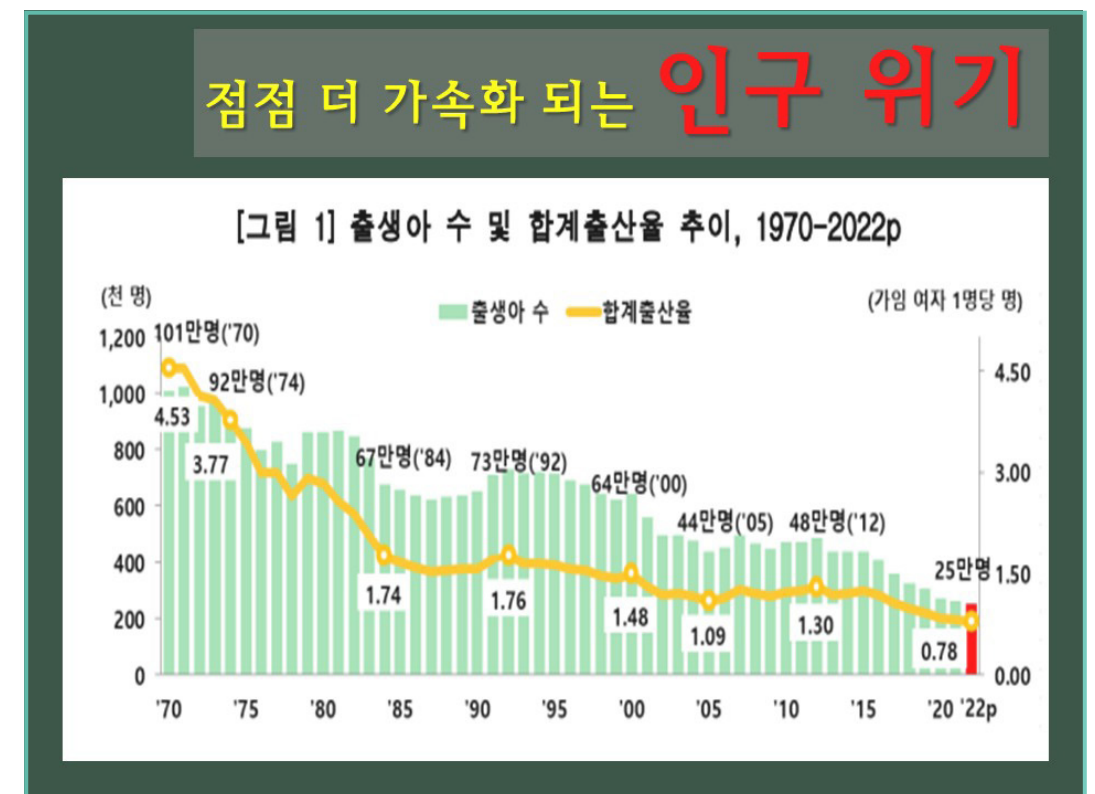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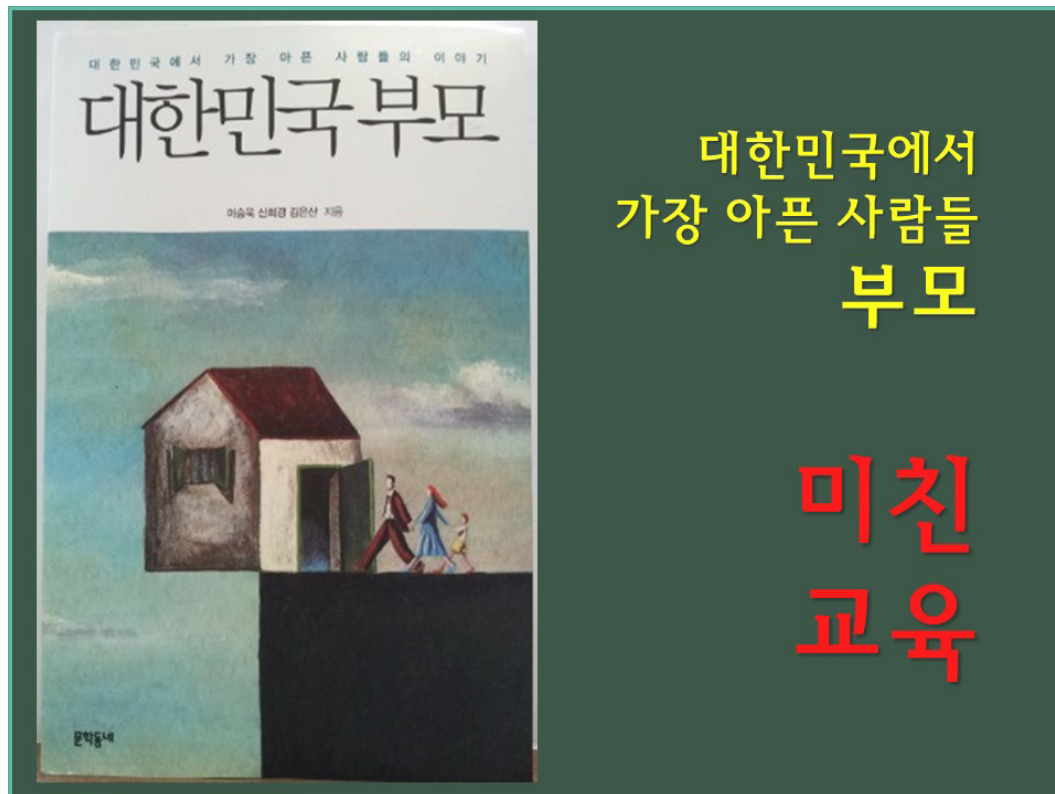
산부인과 원장 김혜영

산부인과 원장 김서희

고가 산후조리원 TOP5 (단위 : 원)

	일반실	특실
그녀의정원드라마(강남구)	850만	2500만
헤리티지(강남구)	960만	2000만
더블레스(강남구)	720만	1800만
도곡궁(강남구)	630만	1500만
산후조리원공상성정(강남구)	555만	1300만
서울 평균(전국 평균)	314만 (234만)	

※ 이용요금은 2주 기준, 서울·전국 평균 일반실 기준
(자료 : 서울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인구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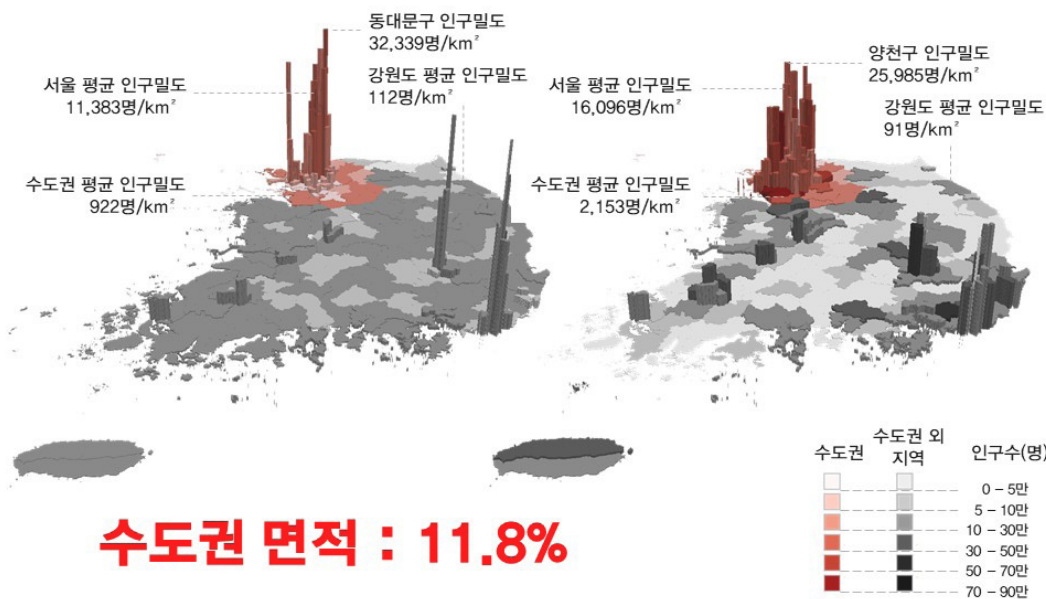
감소보다 **쏠림**이 문제의 핵심
인구를 뺏는 3개 블랙홀

수도권 + 대도시 + 신도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색깔)와 인구밀도(높이) 변화(1975-2019)

1975년_수도권 인구비율 **31.5%**

2019년_수도권 인구비율 **50.0%**



2. 문제의 근원

성장통
개발병

개발(開發) - **물건** 같은 도시(터) 만들기

빨리빨리 : 중앙집권형, 분업형
성과주의 : 과정보다 결과 중시
성장거점 : 대도시, 대기업 육성

재생(再生) - **생명체** 같은 삶터 되살림

마을, 도시, 지역을 생명체로 보자!
국토는 한 몸 생명체!
죽이지 말고 살려야!

성장거점개발론

골고루 말고, 클 놈을 키워라!

대도시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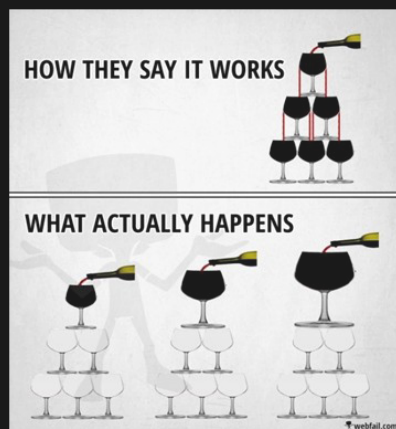
만아들



표류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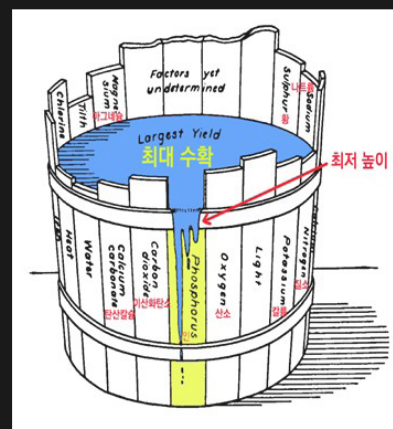
국토균형발전

성장거점개발론 낙수효과



편중, 불균형, 격차 심화!

리비히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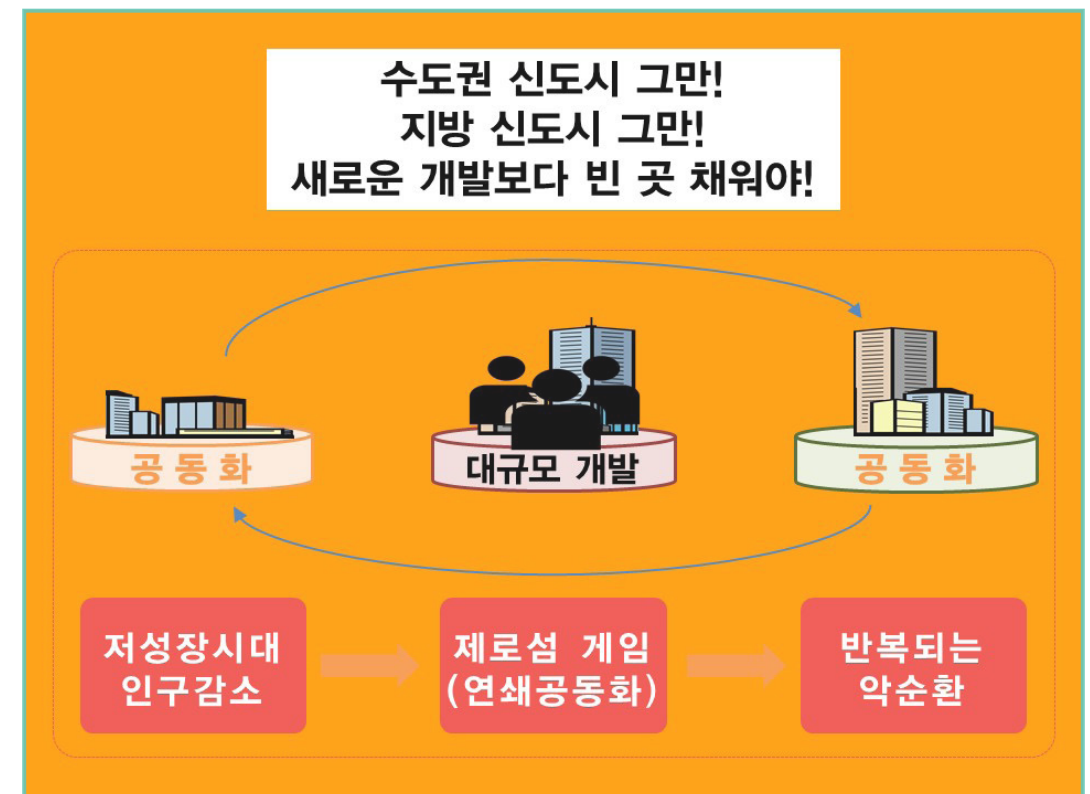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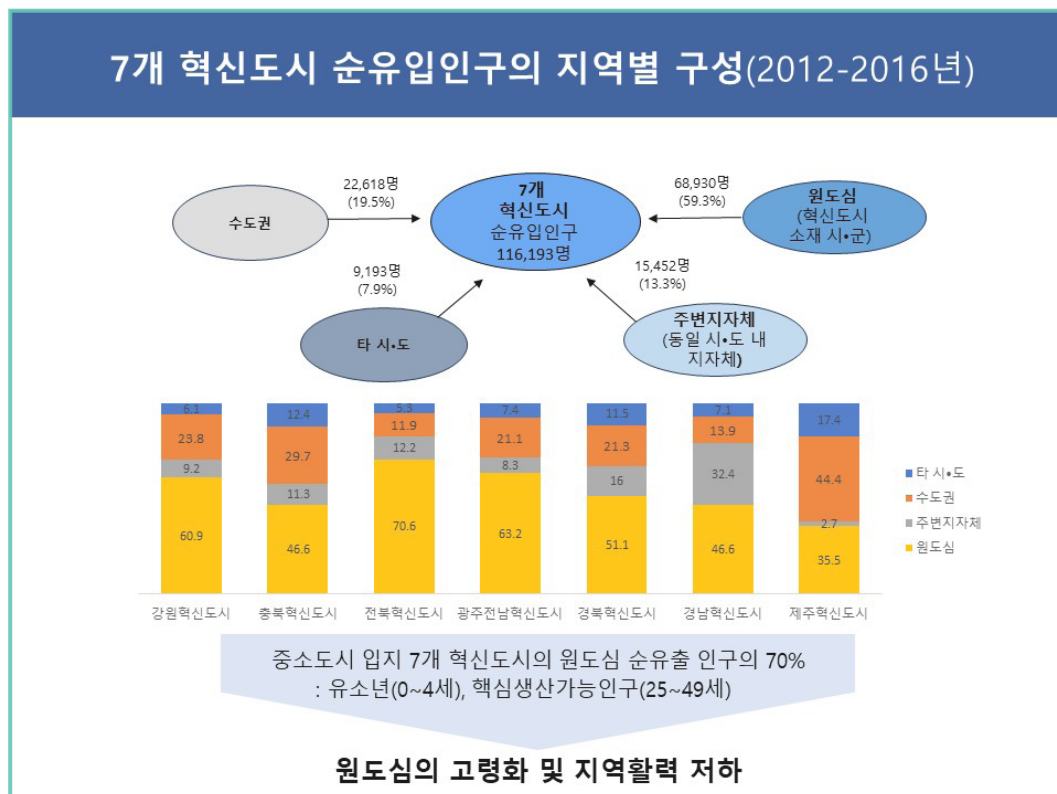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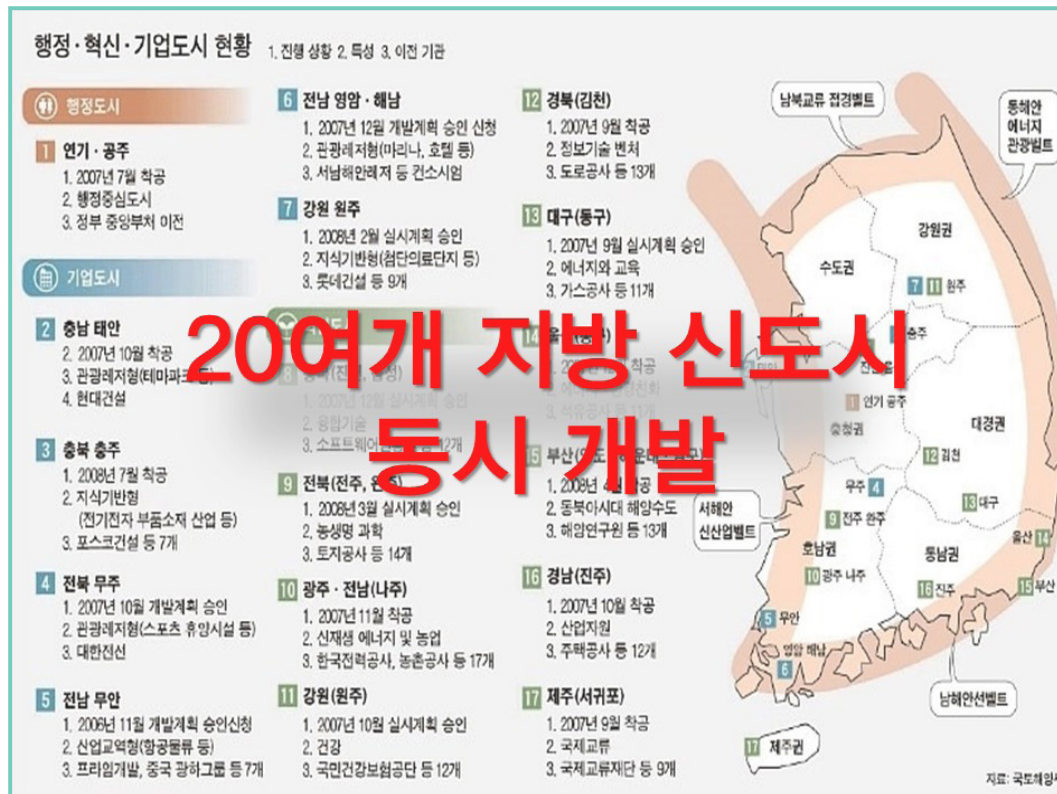
가장 약한 곳을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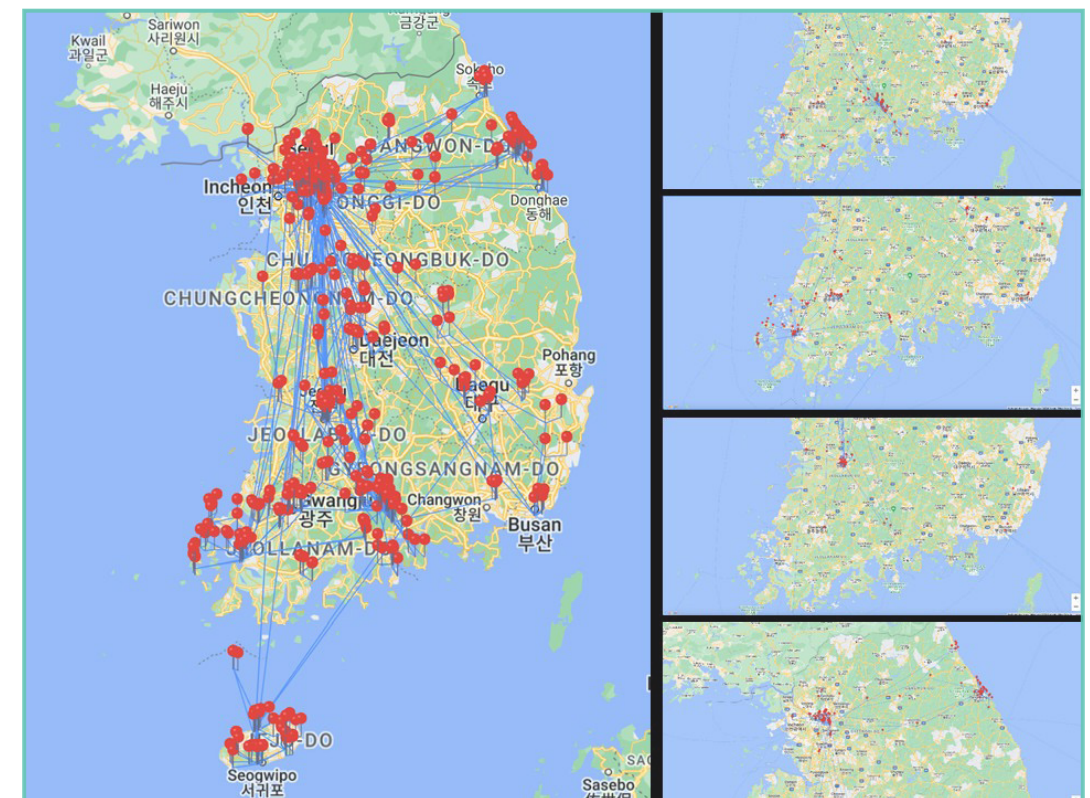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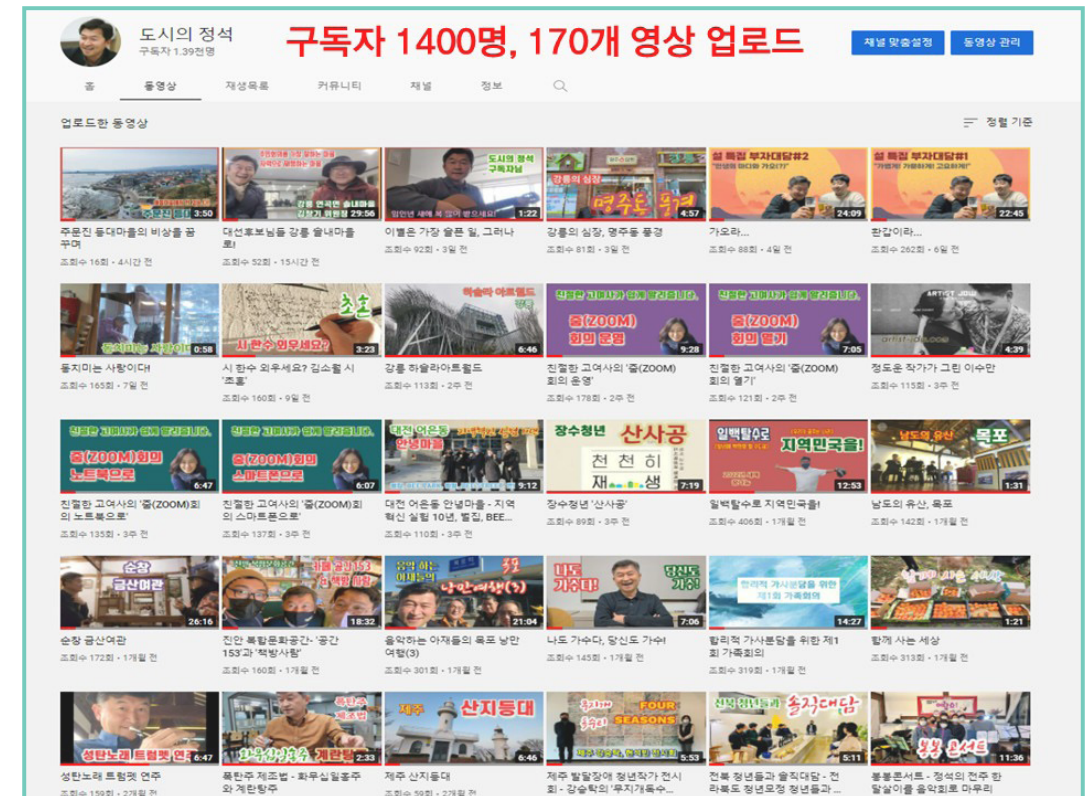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2004. 1.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2007. 7. 20



3. 해법 : 일백탈수 지역민국 로컬 살리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 개설 : 도시의 정석

2021년
연구년
지역 한달살이





주제강연: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가르모 와이너리 정성모 대표



고매감 농장 고사리 따기



무애산방 이수운 대표



지리산 농부마을 김정태 대표

관 찰 아 마 을 다 큐 멘 터 리 영 화

다 행 이 네 요

Jeonju Intl. Film Festival
제 20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2:11:06

[38억 6천만 원으로 마을 만들기] BBC, 다큐 3일
: 소개된 목포 관찰아마을 다큐멘터리 영화 '다행(...)
관찰아마을 · 조회수 6.2천회 · 6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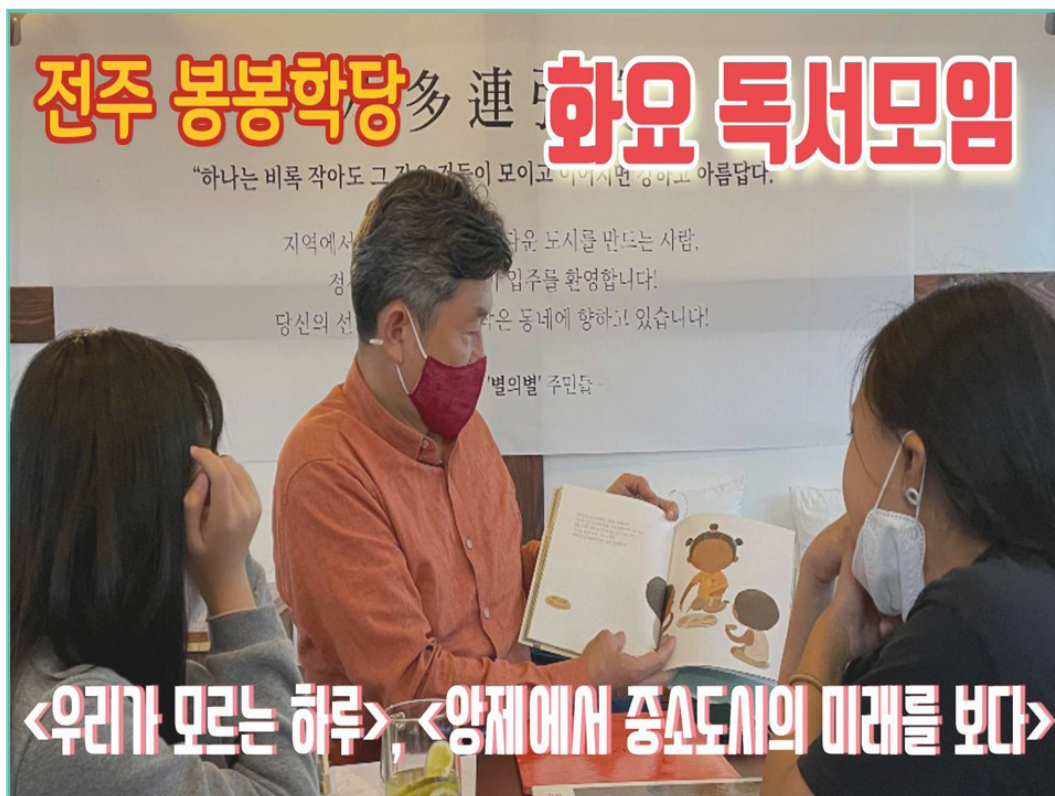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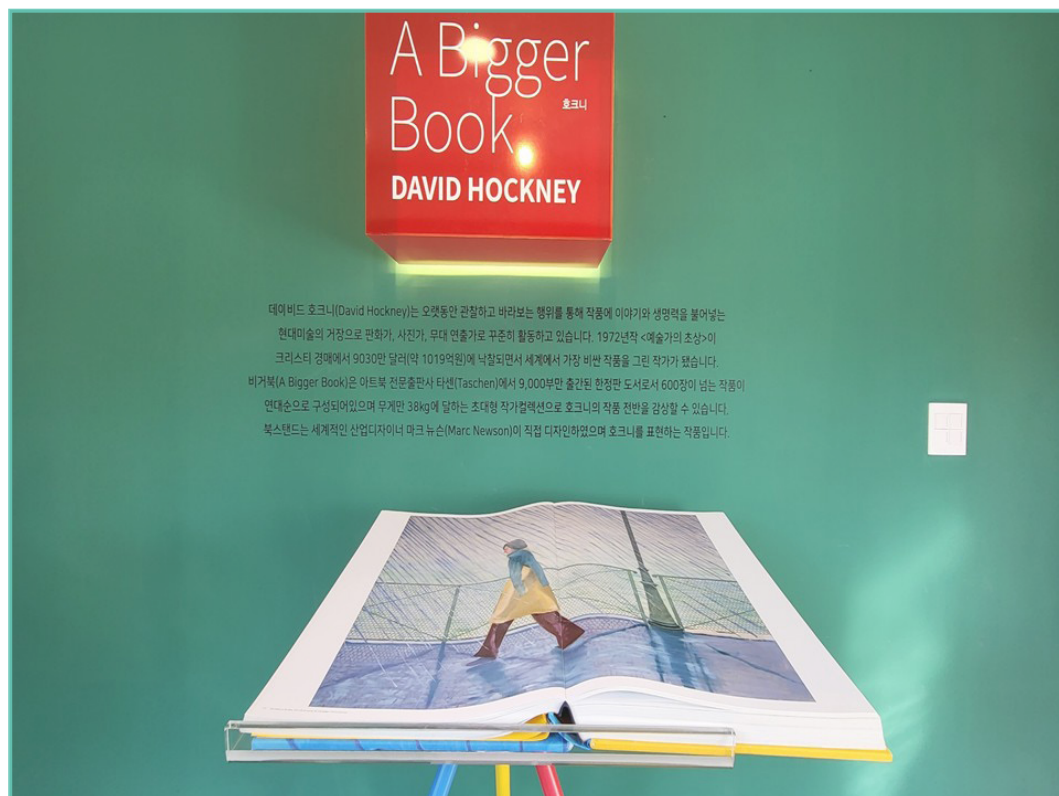
건맥축제(2019.9.28. 토. 14:00~21:00)



건맥펍 오픈(2020.7.)

건맥펍 오픈(2020. 7.)









연화정 도서관(덕진연못)

일백탈수로
(일년에 백만명 탈 수도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지역민국을!

2022년 새해
꿈나눔



아중호수도서관

청년들의 로컬창업, 취업
베이비부머들의 로컬이주
학부모들의 로컬 유학

일자리 찾아 서울로?
행복을 찾아 로컬로!

1년에 100만명!
10년에 1000만명!

치유의 시작
일백탈수

대한민국 = ∑ 지역민국

-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지역민국 ≠ 지방자치단체

- 주민/시민이 주인인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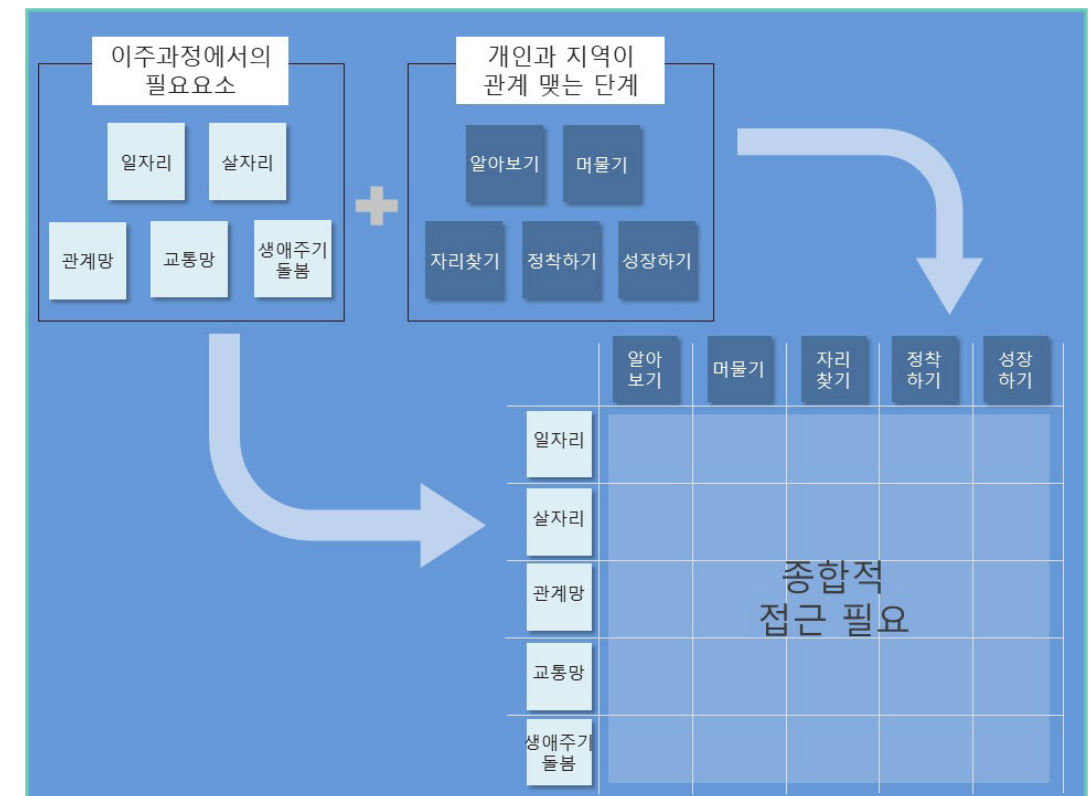
하동민국, 강릉민국, 진안민국

전북민국, 지리산민국...

치유의 완결

지역민국

51% 혁명



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관점의 전환

1. 인구 → 인재

외부 인재 중심 → 내·외부 인재 시너지
전입중심 → 전입+교류

2. 기다림 → 마중

공급자 중심 → 수요자 맞춤
각자 생존 → 공동체 환대

3. 개별 → 연결

신개발 → 유희자원 활용
단일생활권 교통 → 연계생활권 교통
단일목적사업 → 통합지원사업
각자도생 → 소도시연합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

1) 일자리

2) 살자리

3) 교통망

4) 관계망

5) 생애주기 돌봄

더 행복한 로컬의 선결조건_01 일자리

존중 받고 자부심 주는 일자리

취업, 프리랜서, 창업, 위성사무소 등

문경 화수헌 - 리플레이스



문경 산양정행소 - 리플레이스



경상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054-470-8502~6)로 문의

9월!!!
도시청년 시골파견이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2017 - 현재)

청년 1인 3천만원/년
(최대 2년, 5명팀)

도시청년들 초대
문화예술, 청년창업
역사탐방, 지역공헌 등

모집기간
8월31일 부터
*시군별 접수기간 상이

대상,
경상북도에서 창업, 창직, 창직활동을
희망하는 전국 청년 누구나
(만39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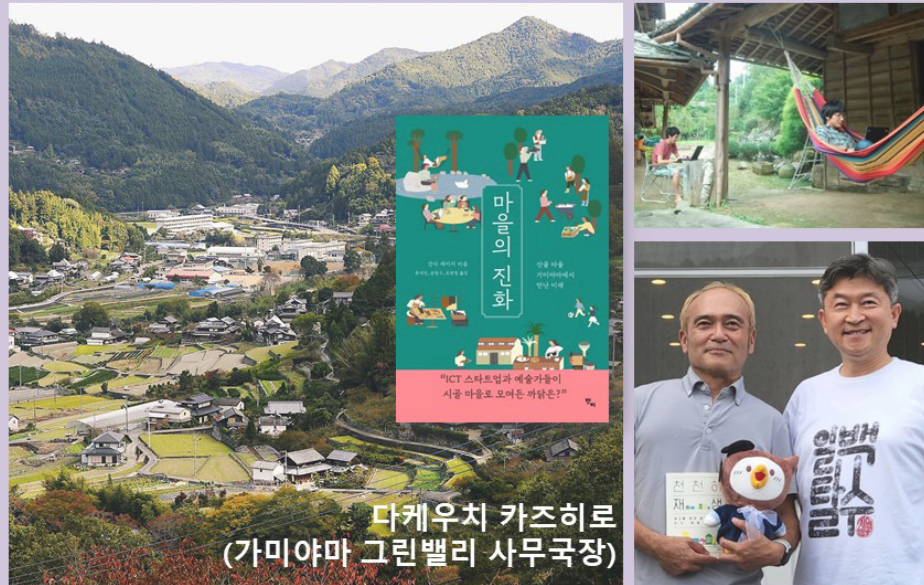
지원금
청년 1인 기준
3천만원
(최대 2년 지원)

분야
문화예술, 청년창업,
역사탐방, 지역공헌 등
청년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



일본사례 1.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神山町) - 인재들이 계속 오는 산골마을



다케우치 카즈히로
(가미야마 그린밸리 사무국장)

일본사례 1.

위성사무소 유치(2010~2020)

위성사무소 엔가와



위성사무소 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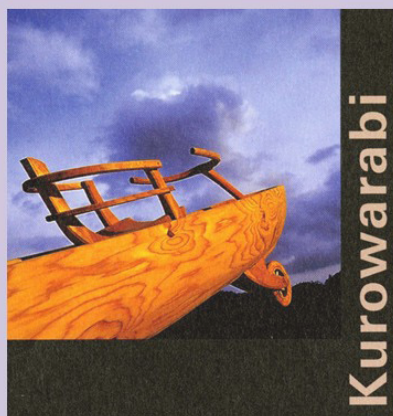
- 민간창고 개조 위성오피스로
- 지역매력을 외지인에게 전파

- 도쿄에 본사를 둔 IT벤처회사
- 2013년 가미야마에 위성사무소
- 전혀 새로운 방식의 워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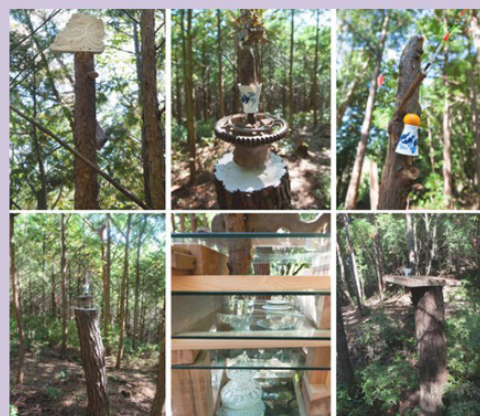
사진 출처 : 한7월, google 이미지검색

일본사례 1.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1999), 고속통신망 구축(2005)



1999년 초빙작가 쿠로와라비 작품
(1999~2000 가미야마정 체류)



2019년 카노 테츠로 설치 작품

사진 출처 : 인카미야마재팬

일본사례 1.

가미야마 주쿠(2010) - 이주 청년/중장년 교육훈련학교(神山塾)



가미야마 주쿠 14기 단체사진 (2022)

사진 출처 : 카탈로그 시고쿠

일본사례 2.

가미야마 창업 사례

SHIZQ (시즈쿠)



- 잘린 삼나무로 컵과 그릇 제작
- 산과 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가미야마 비어



- 가미야마 체류 중 상품 개발
- 아일랜드+일본인 부부 창업
- 산골마을 수제 맥주 브랜딩

사진 출처: SHIZQ, 가미야마 비어 공식 홈페이지

일본사례 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福岡県福岡市) 창업도시 선언 Fukuoka Growth Next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기구)



- 2010년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 당선, 2012 스타트업시티 후쿠오카 선언
- 2017년 '후쿠오카시', '현지 기업' 연계 차세대 창업지원기구 FGN 설립

일본사례 2.

가미야마 마루고토 전문학교 개교 (2023. 4. 2) 고등학교 3년 + 전문대 2년 = 5년제, 200명, 전원



가미야마 마루고토 전문학교 입학식



활동적인 학습형 강의
문제해결 실천적 학습

사진 출처: 텔레東BIZ YOUTUBE, 가미야마 마루고토 전문학교 홈페이지

일본사례 3.

Fukuoka Growth Next (FGN)

- 텐진역 근처 옛 다이묘초등학교 폐교 건물에 입주, 창업 지원
- 공용 사무실, 이벤트 공간, 스타트업카페 등 다양한 지원 활동



일본사례 3.

Fukuoka Growth Next (FGN)



FGN으로 재생된
(구) 다이묘 초등학교



공용 사무실 등으로 재탄생한 내부

빈집을 고급 독채 숙소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빈집 재생
프로세스

- STEP 1
빈집 의뢰, 무상 임대, 매입
- STEP 2
자금 조달
- STEP 3
빈집 리모델링
- STEP 4
스테이 및 F/B 등
다양한 공간 활용

**다자요
모델**

빈집을 고급 독채 숙소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고급 숙소로 제공합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고급 숙소로 제공합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고급 숙소로 제공합니다.

더 행복한 로컬의 선결조건_02 살자리(스테이)

로컬에서 머물고 살 거주공간

게스트하우스, 청년/신혼부부 공유/공동체주택,
빈집활용 스테이 등

1EURO PROJECT
@elephant v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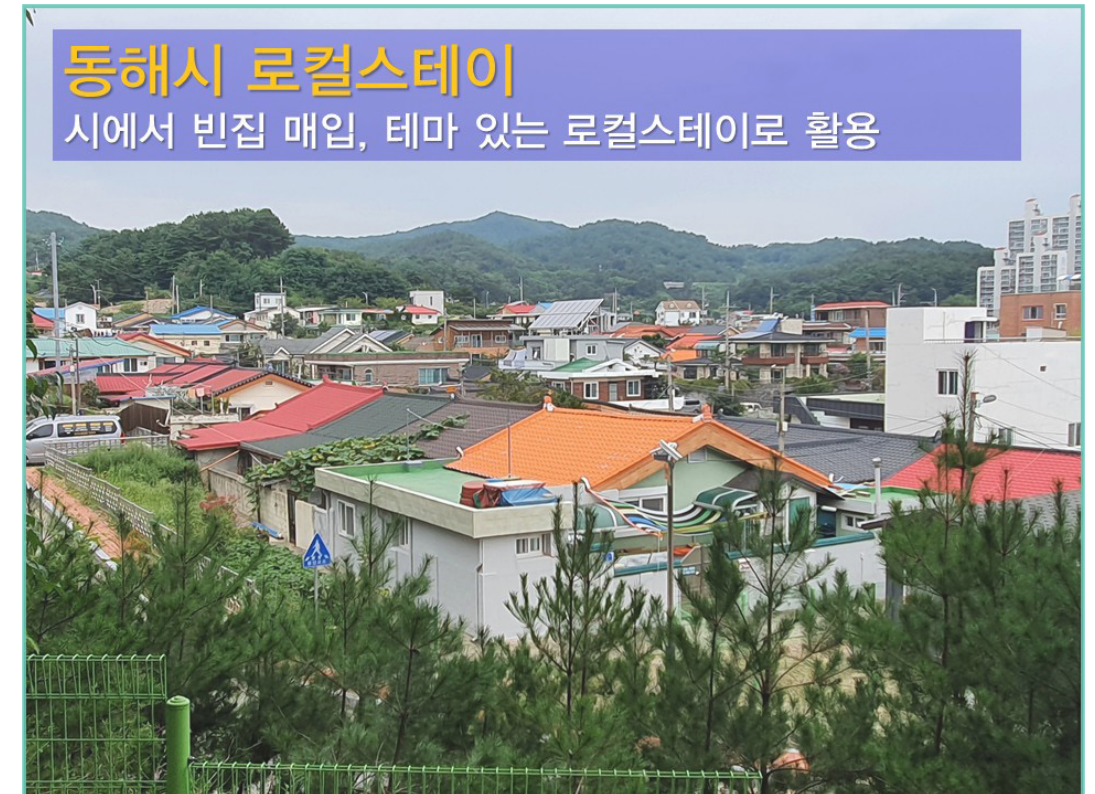
2023

2025

1€
1EURO PROJECT

국내 최초
1유로 프로젝트

서울 성동구 송정동 코키리빌라



일본사례 4.

기타큐슈시(北九州市)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함께! 자생으로!”

- 시미즈 선생 초대, 야모리검토위원회 조직
- “고쿠라 야모리 구상” 수립(2010~2014)
- 빈집재생을 위한 단기 <리노베이션 스쿨>
- 빈집 > 개보수 > 창업으로 지역재생
- 야모리(家守) 현대화 : 지역관리회사
- 부동산 소유주에게 만화 가이드북 제공

사진 출처 : 기타큐슈시청 제공

일본사례 4.

고쿠라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사례 : Mercato3, Vicolo3



←Mercato3
상업시설에서 스타트업 거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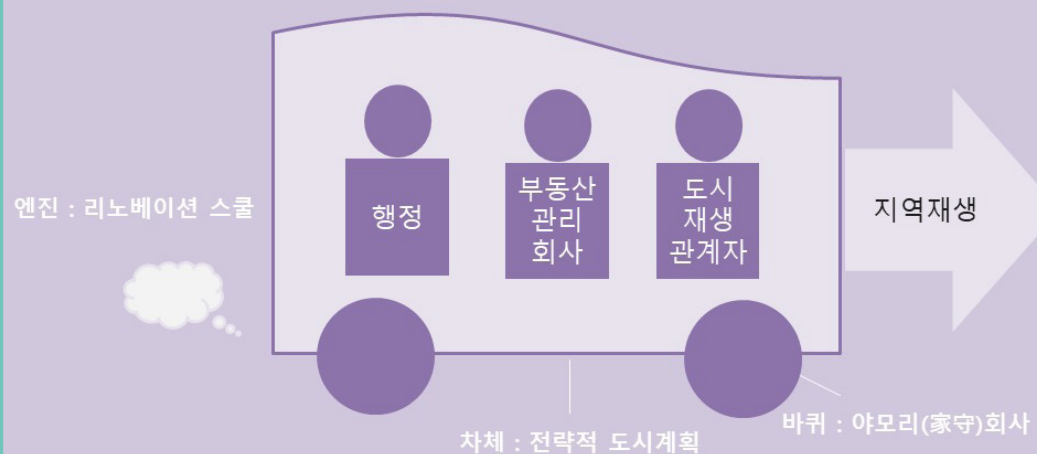
시마다 히데노리 대표와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주역



일본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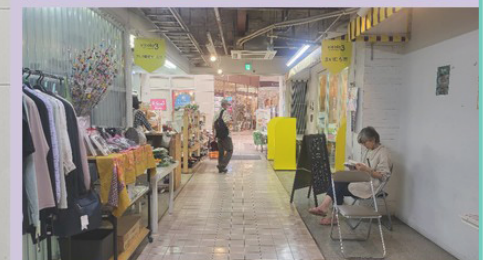
기타큐슈시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3요소

- 전략적 도시계획 : 종합적 마스터플랜
- 리노베이션 스쿨 : 프로젝트 창출 및 인재육성
- 야모리(家守)회사 : 리노베이션 스쿨 지속적 자생을 위한 민간회사



NAKAYA BUILDING FLOOR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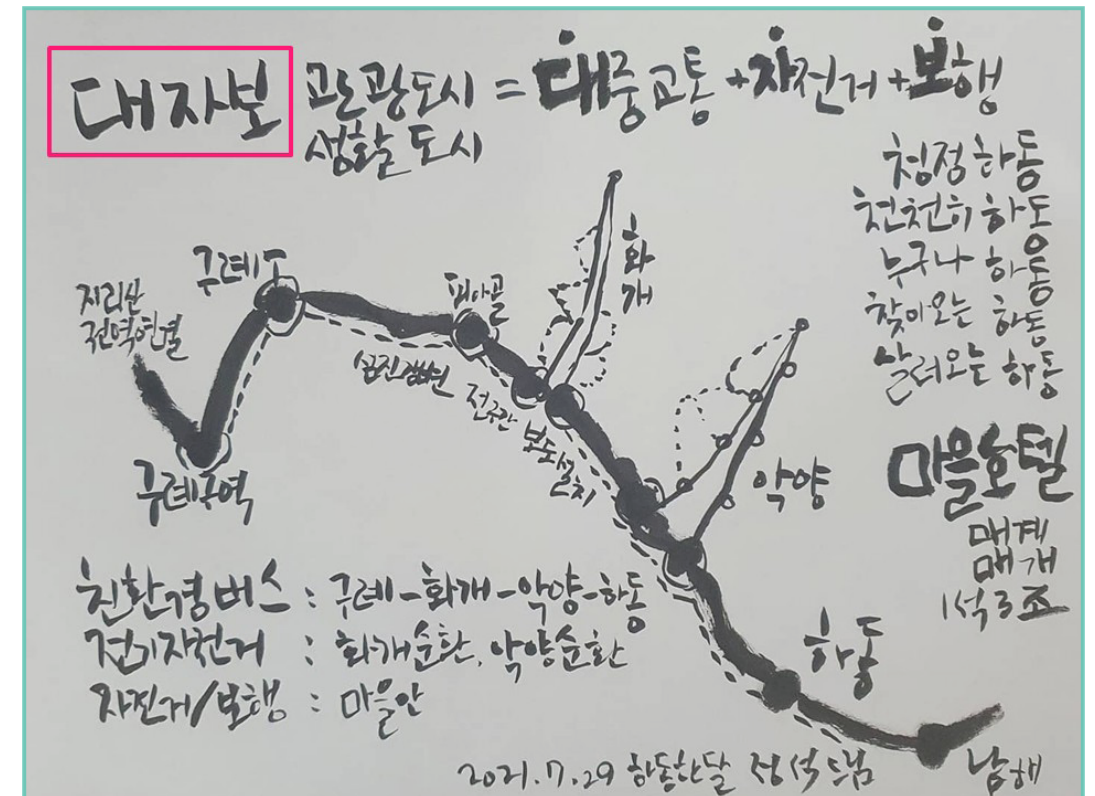
5F NAKAYA BUILDING	中屋興産株式会社	forum3 フォーラム三層街	イベントホール オープンシアター/倉庫	UOSTA ウオस्ता
4F NAKAYA BUILDING				
3F NAKAYA BUILDING	FOR RENT 現在テナントを募集しております。			
2F NAKAYA BUILDING	Mercato3 メルカート三層街	Popolato3 ポポラート三層街		
1F NAKAYA BUILDING				
B1F NAKAYA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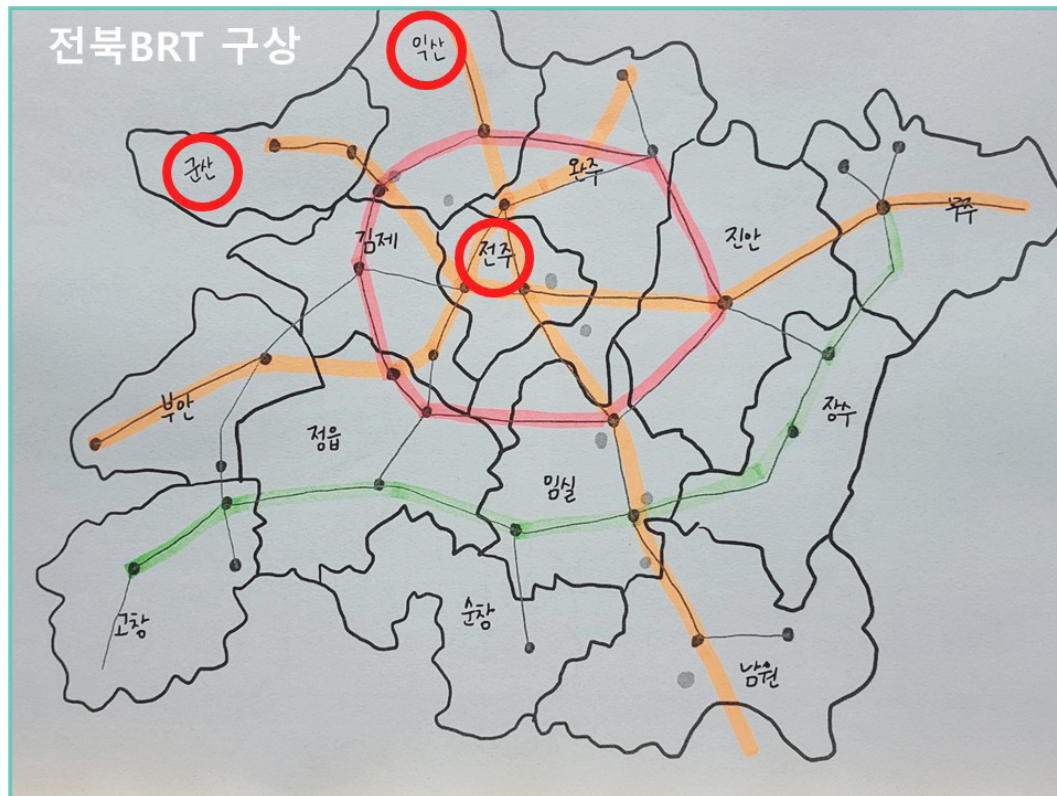


교통망

로컬 안팎을 빨리 오가는 대중교통

철도, BRT, 자전거, DRT, 셔틀버스/트레인,
정기권, 무료대중교통 등





독일 9유로 티켓 : 2022. 6 ~ 8월. (5200만장, 인구 60%)
 독일 49유로 티켓 : 2023. 5. 1. 발매

9-EURO-TICKET GERMANY-WIDE

Book it now!

The 9-Euro-Ticket is now available in the ticket shop!

You can use **local and regional transport throughout Germany** in June, July and August for 9 euros a month each.

💡 **MVV subscribers benefit automatically!**

[More info](#)

9 EURO TICKET

DIE MOBILITÄTS-MACHER*INNEN.

DEUTSCHLANDTIC... DE

Ab 01. Mai 2023

Das Deutschland-ticket kommt!

Ein Abo für alles und überall.

Für nur 49 Euro.

D-TICKET

en Informationen und Updates zum Deutschla



대중교통 무료 에스토니아: 2018년 7월부터 전국 무료화
 수도 탈린 무료화(2013-2018), $1200 - 1000 = 200$



신안 - 목포 간 공영버스 운행 안내문

신안 - 목포 간 공영버스 운행

노선 □ 1004(자은방면) : 자은 → 목포버스터미널
□ 2004(안좌방면) : 안좌 → 목포버스터미널

경유지

1004(자은방면)
자은(시외버스터미널) → 신안읍행정복지센터 → 구룡포(농협) → 오산리 → 남포(농협) → 구룡포(농협) → 목포(시외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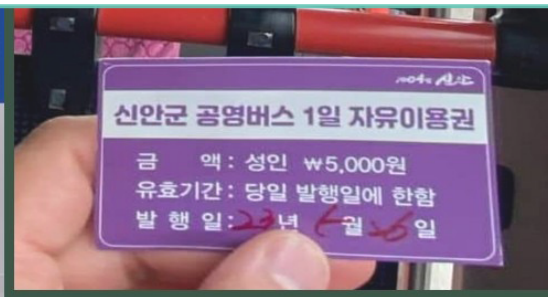
2004(안좌방면)
안좌(시외버스터미널) → 신안읍행정복지센터 → 구룡포(농협) → 오산리 → 남포(농협) → 구룡포(농협) →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시간표 별도 게시를 참조
※ 1004대교 개통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말의 경우 정차로 인해 결행할 수 있으며, 평일은 10여분 정도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버스터미널) 승·하차 장소 : 목포터미널 내 1번 출

운임요금 ※ 군내·관내 이용 시 공영버스 요금이 적용되나 관외(목포) 이용 시 농어촌버스 요금 적용
※ 일반·농어촌버스요금 적용

구분	운행구간	운임요금	비고
군민	관내 (중부권 ~ 안좌)	1,000원	65세 이상, 초·중·고생, 장애인 등 무료
	관외 (중부권 ~ 목포)	1,000원	
일반 (관외)	관내 (중부권 ~ 안좌)	3,000원	초등학생 50%, 중·고등학생 20% 할인, 상해군민 무료
	관외 (중부권 ~ 목포)	3,000원	



우주최초! 청송에서는 누구나 버스요금이 0원?!

유튜브 브이로그 ▶ 감상하고 기프티콘 받아가자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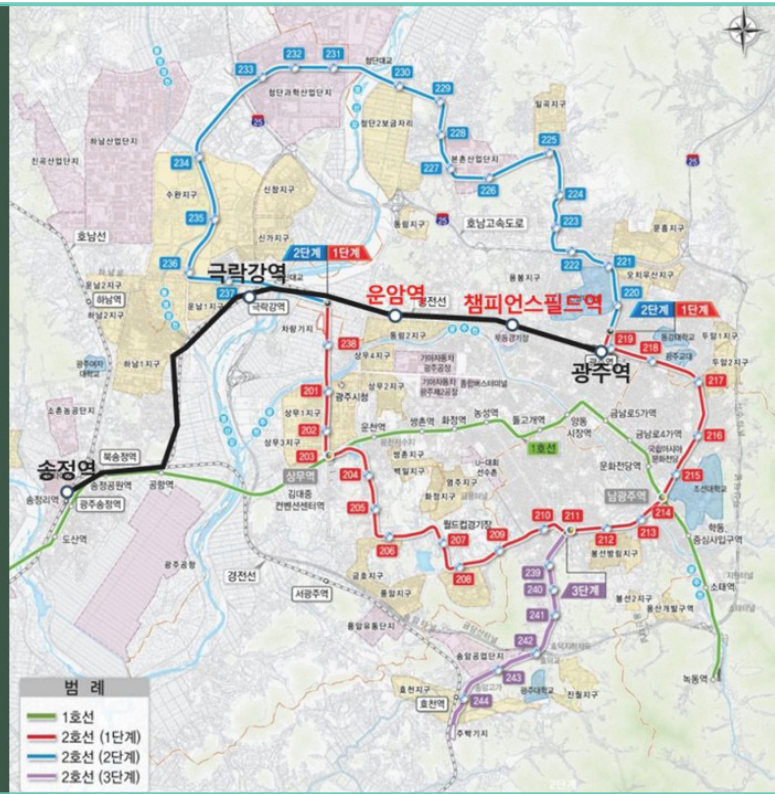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광주역~송정역 셔틀

승차권
광주송정 (Gwangju Songjeong) → 광주 (Gwangju)
기 12:03 15:18
종근영차 2765 열차 (일반실)
좌석번호: 자유석
*타는 곳 번호는 출발 15분전부터 안내전광판에
2,000원 1,000원
발매금액 0원
환수액 1,000원

송정역~광주 역 서틀열차 활성화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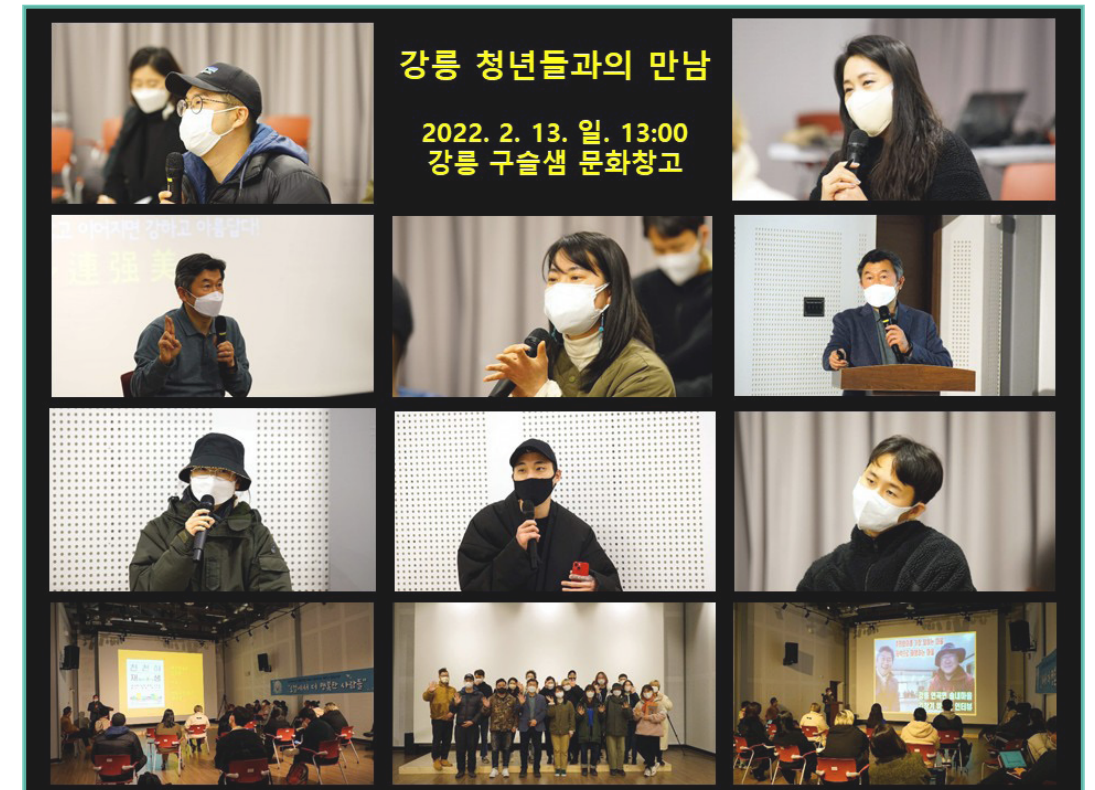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양희창 제안



더 행복한 로컬의 선결조건_04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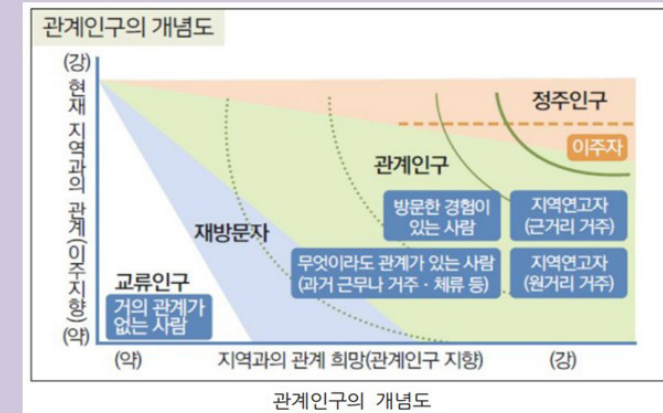
마음과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모임, 동아리, 네트워크 파티, 버스킹 등





관계인구 정책 (2018-2020)



- 유형1. 관계심화형 (연고형, 고향납세형)
- 유형2. 관계창출형
- 유형3. 내국인 저변확대형 (관심 없는 사람 대상)
- 유형4. 외국인 저변확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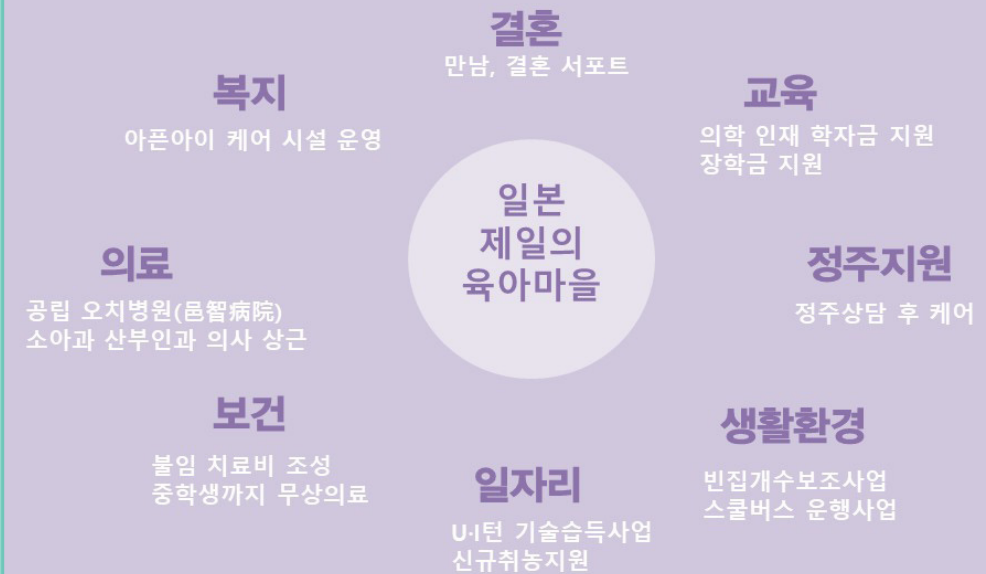
더 행복한 로컬의 선결조건_05 생애주기 돌봄

수요자 필요에 부응하는 돌봄행정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등 수요자 맞춤형
행정지원과 서비스

일본사례 5.

시마네현 **오난정**(島根県邑南町)



일본사례 5.

시마네현 **오난정**(島根県邑南町)

일본 제일의 육아마을(日本一の子育て村)



<유니폼 대 유니폼>

약 9,600명의 소도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명대 출생아 유지

24시간 의료서비스 지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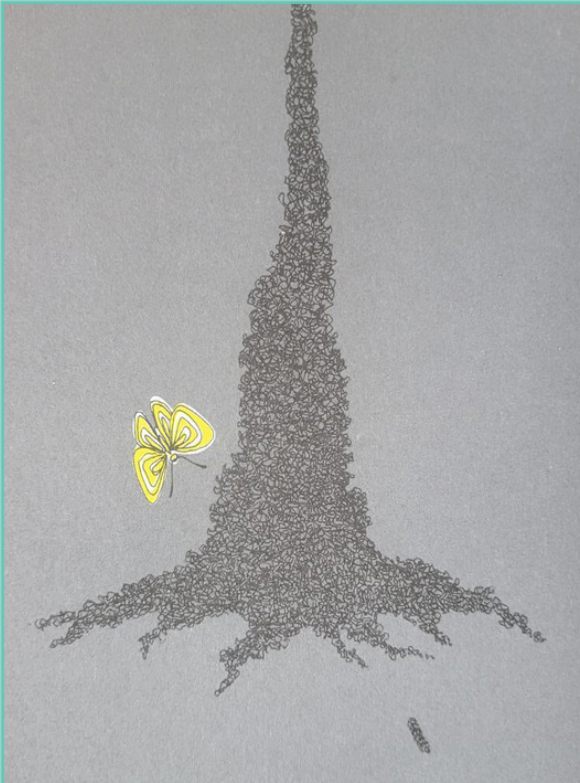
일본사례 5.

시마네현 **오난정**(島根県邑南町)



<오난정 육아 지원 핸드북>

- 어린이 종합 상담실(子どもまるごと相談室) 운영(2017.04~)
- 임신·출산·육아를 한 곳에서 상담
- 보육소, 학교 등 13개 연계기관 협력
- 최근 '가사대행 서비스'로 아이 돌봄 실시 (1시간당 5000원, 사회적 약자 감액)



**로컬을 살리는
5대 영양소**

- 1) 일자리
- 2) 살자리
- 3) 교통망
- 4) 관계망
- 5) 생애주기 돌봄

이타가 곧 이기다!

이타적 이기주의

건강한 국토!

행복한 국민!

지속 가능한 나라!



도시의 생존
도시의 성장은 계속될 것인가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문석 옮김

도시에 대한 여러 의문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책으로, 강력 추천한다.
홍순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이 책에 담긴 도시의 생존법은 무엇일까? 내가 읽은 저자들의 메시지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다. 도시의 생존은 시민의 마음에 달렸다.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의 발전》 저자

저자들은 도시가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일자리, 자동화, 범죄 등 여러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조귀홍, 작가 · 《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

《도시의 승리》 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저 신작!

팬데믹부터 공중보건, 일자리, 인프라, 식생활, 교육, 주거, 범죄까지

도시의 역사 2,500년에 대한 회고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

행복@로컬
청년이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영양소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튜브 : **도시의 정석**





로컬 지향의 시대
우주최초! 청정에서는 누구나 버스요금 0원!
천 천 히 재 생
hope for the flowers
9-EURO-TICKET GERMANY-WIDE
로컬 청년과의 취중진담







청년정책포럼 연혁

2023 11월. 군산청년정책포럼
군산, 청년정책을 말하다

2024 6월. 군산청년정책 사전포럼

7월. 군산청년정책포럼
청년의 미래! 청년이 만드는 정책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2025 6월. 군산청년정책 사전포럼
청년의 바람, 청년의 군산

9월. 군산청년정책포럼

군산을 다시보다; "군산은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가"

2025 정책포럼 군산을 다시 보다

주최·주관

군산시
군산시청년플

기획·운영

군산시청년플
우만컴퍼니

디자인

우만컴퍼니

2025. 9. 발행